

삶의 질의 개념, 구성요소 및 측정방법: A Survey

이재기 · 이은우 · 김재홍

사회과학부 경제학전공 · 경제학전공 · 행정학전공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삶의 질 개념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하여, 삶의 질 구성요소, 삶의 질 측정방법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삶의 질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Sen의 실현능력 접근법이 가장 탁월한 접근방법으로 평가되며, 삶의 질 평가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 타당성을 지닐 수 있음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Sen류의 가치척도함수인 Nissan의 다차원 거리지표모형을 발전시킨 다차원·다년도 거리지표모형을 제시하였다.

Concepts, Constituents and Measurement of Quality of Life: A Survey

Lee, Jaeki · Lee, Eunwoo · Kim, Jaehong

Professor of Economics · Professor of Economics · Professor of Public Administration

<Abstract>

This paper implemented an introductory survey regarding various concepts, constituents and measuring methods of quality of life. Among the various concepts, capability approach developed by A. Sen seems to be the most advanced one, notwithstanding its difficulties of practical application. The constituents of quality of life are also diverse, but if well chosen, objective factors can be reasonable variables which determine quality of life. Finally, we developed a multi-dimensional and multi-year distance index model, a refinement of Nissan's model, by which we can make intercity as well as interyear comparison of quality of life.

1. 서론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대한 관심과 학문적인 연구는 대체로 1960년대 후반 總量 성장 위주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批判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간 발전정도의 비교는 1인당 GNP와 같은 경제적 지표에 의하여 선·후진국으로 구분되며, 한 국가 내에서도 所得水準이 지역발전정도의 가장 중요한 척도로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소득수준의 증대가 소비생활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온 것은 사실이나 發展(development)의 개념이 경제성장과 가치체계의 변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의미한다면, 소득이나 GNP 같은 경제적 지표는 생활수준의 量的 성장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이며 사회에서 요구되는 생활수준의 변화와 質的 성장의 측면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이에 따라 국가 혹은 지역발전의 준거 틀로서 경제지표(Economic Indicator)가 가지고 있는 제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나타나게 된 것이 社會指標(Social Indicator)이다.

사회지표는 삶의 질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개량화하여 작성된다. 사회지표는 보다 巨視的 개념이고 삶의 질은 微視的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사회지표로서의 삶의 질은 국가의 사회정책의 準據 혹은 規範의 基準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개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간의 삶의 질을 비교하여 삶의 질의 지역간 均衡적인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삶의 질 연구의 본질이다. 그러나 삶의 질은 국가 혹은 지역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경험하는 사회적 조건과 같은 客觀的인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의 욕구수준에 따라 다양한 主觀的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질 지표작성을 위한 합의된 원칙은 도출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사회지표 작성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삶의 질 측정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Mayers(1987)는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접근방법으로서 개인의 주관적인 생활 滿足度를 측정하는 個人福祉接近法(personal well-being approach), 지역사회의 삶의 질 구성요소와 그 추세에 초점을 두는 地域趨勢接近法(community trend approach),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의 지역간 비교에 중점을 두는 生活可能性接近法(livability comparison approach), 그리고 임금과 주거비용에 내재된 지역간 삶의 질의 차이의 보상정도를 추정하는 市場·住居接近法(market/residence approach)의 4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정환용, 1995).

이처럼 삶의 질 측정의 접근방법이 다양하고 동일한 접근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측정방법에 따라 지역의 삶의 질 지표가 다르게 측정된다. 실제로 자료는 동일하지만 측정방법이 상이한 Boyer and Savageau(1985)와 Nissan(1989)의 도시간 삶의 질 비교연구는 매우 相異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지역간 삶의 지표에 대한 정보는 지역사회의 政策開發 뿐만 아니라 지역간 人口移動과 企業移動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삶의 질 지표측정의 정확성을 위한 方法論의 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지표를 이용한 지역별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정확한 實態把握은 지역별 均衡成長을 위한 政策方向의 설정에 무엇보다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經濟發展 과정에서 지역간 발전정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지역별 삶의 질 차이도 相當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경제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간 균형발전이 필수적이며,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간 삶의 질을 균등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이 地域均衡的 발전이라고 볼 때, 지역별 삶의 질 차이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地域均衡的인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삶의 질의 측정은 그 중요성이 대단히 크나 그 측정을 위한 방법론상의 다양성 때문에 측정의 결과를 평가하고 비교하는데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방법론상의 혼란의 이면에는 과연 삶의 질이란 무엇이며,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일의적인 답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삶의 질 개념을 모색해 본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질 개념을 바탕으로 그 측정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삶의 질의 概念에 관한 여러 觀點¹⁾

삶의 질의 개념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울 정도로 다양한 見解가 존재한다. 그 이유로는 삶의 질과 관련되어 서로 연관성은 있으나 차별화 되는 많은 의문 혹은 질문 - 어떤 종류의 상황이 바람직한 삶의 조건을 제공하는가? 무엇이 어떤 개인의 삶을 좋은 것(a good one)으로 만들어 주는가? 무엇이 삶을 가치 있는 것(a valuable one)으로 만들어 주는가? - 이提起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문은 삶의 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해석 혹은 답변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이 개인의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 자신, 친구나 부모와 같은 제3자, 행정관리자 등 그 입장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질과 관련한 우리의 논의의 중심은 위의 3가지 질문 중 바람직한 삶의 조건과 관련된 처음의 2가지 질문에 두어지게 된다.²⁾

삶의 질을 바람직한 삶의 조건으로 파악할 경우 이는 주로 個人的 福祉 혹은 개인의 복지의 實體를 규정하는 內容 및 要素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삶의 질은 개인의 복지와 類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적 내용으로서 개인 복지를 보다 분석적인 수준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觀念으로서의 역할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삶의 질의 개념에 관한 여러 관점들을 고찰하고, 최근에 개발된 A. Sen의 실현능력접근(Capability Approach)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삶의 질 측정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 삶의 질 개념 및 그 결정요인을 모색한다.

(1) 快樂理論(Hedonistic Theories)

쾌락이론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특성은 '경험요건'(experience requirement)이다. 이는 삶을 영위해 가는 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前提로 하는 것으로, 삶의 질은 經驗要件에 立脚한 主觀的 내지 心理的

1) 삶의 질의 여러 관점들에 대한 논의는 주로 Scanlon(1993)을 참고하였다.

2) 가치문제와 관련된 세 번째 질문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으나 우리의 논의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그 이유는 전자의 두 질문과는 달리 도덕성, 정의 등 그 측정이 어려운 추상적인 가치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이론에 의해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요인인 삶의 經驗의 質을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판단은 삶을 좋게 혹은 나쁘게 하는 어떤 특정한 狀況 혹은 狀態(기쁨 혹은 행복)를 명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³⁾ 그러나 이 이론은 삶의 주체인 개인의 選好가 다양하기 때문에 삶의 질의 평가나 정책실시를 위한 確立적인 판단기준의 적용이 어렵다는 근본적인 限界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2) 欲求理論(Desire Theory)

이 이론은 삶의 질이 개인이 지니는 욕구의 충족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욕구이론은 쾌락이론의 전제가 되는 經驗要件을 棄却하고, 개인의 삶은 그 개인의 의식상태 변화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선호를 충족시켜주는 外部의 狀況(occurrences)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부류의 이론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無限現實欲求理論’(Unrestricted Actual Desire Theory)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한 개인이 특정한 시점에서 지니는 선호가 무엇이든 그 충족정도에 의해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개인적으로 어떠한 것에 대한 어떠한 선호라도 가질 수 있으므로 이 이론에 의한 삶의 질의 결정요인은 대단히 광범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다른 부류의 욕구이론들은 적절한 선호를 가지는 對象(objects)으로 삶의 질 결정요인을 제약하거나, 선호에 특정한 基礎(a certain sort of basis)를 부여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전자의 예로 들 수 있는 ‘成功理論’(Success Theory)에서는 개인의 삶에 직관적으로 연계된 선호만을 삶의 질 결정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후자의 예로 Harsanyi는 反社會的인 선호뿐만 아니라 개인의 道德的 信念에 근거한 선호도 삶의 질의 결정요인으로부터 排除하고 있다. 이러한 선호에 대한 제약을 통하여 무한 현실욕구이론을 변형시키려는 논의의 근거는 어떤 개인의 복지 개선이 陽의 윤리적 가치를 지닌다는 복지의 개념을 묘사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는 달리 Griffin은 욕구의 대상들이 지닌 진정한 속성을 반영한 욕구의 체계를 기준으로 그 充足 정도에 따라 삶의 질을 평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⁴⁾ 개인적 혹은 사회적인 욕구의 대상들이 갖는 진정한 속성을 평가하여 그 평가가 肯定的인 경우, 그 욕구는 욕구의 체계에 포함되어 그것의 충족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이론은 앞의 이론들과 유사하다고 보여지나 개인의 主觀性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⁵⁾ 특정한 욕망의 대상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개인의 욕구에도 불구하고 그 충족이 삶의 질을 높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客觀的 目錄理論(Objective List Theory)

객관적 목록이론은 무엇이 삶을 더 좋게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특정한 관점을 제시

3) 이 이론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劃一的으로 규정한다는 문제를 지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삶을 살아가는 개인이 원하는 것을 가질 심리적 상황인 경우 삶의 경험(따라서 삶의 질)이 나아지고, 회피하고자 하는 상황을 포함할 경우 삶의 경험이 악화된다는 견해이다.

4) Griffin은 이를 ‘Informed Desire Theory’라고 명명하고 있다.

5) Scanlon(1993)은 이 이론을 다음의 객관적 목록이론의 범주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範疇에 속하는 이론들은 삶을 더 좋게 만드는 모든 가능한 대상들을 고려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 이론의 이름에서 보듯이 목록(list)이라는 용어는 恣意性을 內包하고 있으며, 객관적(objective)이라는 용어는 모든 사람에게 가치 있는 무엇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일종의 용어상의 硬直性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에 삶의 질과 관련하여 많이 논의되고 있는 사회지표 운동도 이 이론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4) 一次的 財貨理論(Primary Goods Theory)

이 이론은 생활의 기초가 되는 실질적인 財貨가 삶의 질을 규정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재화는 합리적인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기를 원하는 使用價値를 지니는 것들로, 경제학에서의 商品과는 달리 한 사회의 통제대상이 될 수 있는 일차적 사회재화인 권리, 자유, 권력과 기회, 소득과 富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파악한다.

(5) 中間狀態理論(Midfare Theory)

이 이론은 Cohen(1993)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財貨(goods)나 그 재화로부터 얻어지는 效用(utility)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질 논의를 거부하고, 그 중간상태(midfare)가 논의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財貨에 의해 생성된 것이지만 效用은 아니며 재화의 소비에 의해 유발된 상태(財貨와 效用의 중간단계)로서 효용의 수준에 특정한 값을 부여하는 개인적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개인이 음식물의 소비를 통하여 효용을 얻을 때, 그 음식물과 효용 사이에 영양상태라는 중간상태가 존재한다. 삶의 질의 논의 혹은 측정은 이러한 중간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이론의 요체이다.

(6) 實體的 有益理論(Substantive Good Theory)

Scanlon(1993)에 의해 주장된 이 이론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객체에 관한 실체적 판단을 거쳐 삶의 질을 규정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삶의 질을 규정하는 진정한 유의성이며, 그 유의성에 대한 판단이 욕구체계에 우선하여 존재한다고 보는 점에서 Griffin의 이론과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특정한 재화나 사건들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하는 욕구이론과는 논리적 순서가 相反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이론의 문제점은 무엇이 실체적으로 유의한 것이냐에 대한 정의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7) 삶의 질에 대한 實現能力 接近(Capability Approach)

이 이론은 삶의 질을 가치 있는 行爲(doings)나 狀態(beings)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한다. 다시 말하자면 삶의 질은 삶의 구성요소인 다양하고도 가치 있는 機能(functionings)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다고 본다. 제도나 정책 등 사회적인 수준의 좋고 나쁨에 대한 평가도 개인적인 능력의 실현을 돕는 핵심적인 요소로 취급한다. 이와 같은 기능들이 기초적인 단위가 되어 存在機

能群을 구성하고 이러한 기능군이 여러개 모여 實現能力을 규정하게 된다. 이 이론의 핵심은 이러한 가능성이 개인의 복지와 삶의 질에 직결된다고 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은 상품이나 상품의 특성 혹은 효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실현능력에 있다. 예컨대 自轉車라는 商品을 보면 그것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輸送이라는 特性이다. 자전거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로 가기를 원할 때 그 목적이 충족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효용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자전거라는 商品 → 輸送이라는 特性 → 移動할 수 있는 機能에서 오는 實現能力 → 移動에서 오는 效用이라는 연결이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는 세 번째의 실현능력이라고 Sen은 주장한다. 따라서 자전거라는 상품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데서 오는 정신작용 혹은 인간 스스로가 내리는 評價가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예로서 장애자의 경우에는 자전거가 있어도 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삶의 질에 관한 이러한 접근방법은 인간의 복지를 商品(實質所得 혹은 富) 또는 쾌락이나 욕망충족(효용)에서 찾지 않고 사람이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현능력 혹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 접근법에서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機能(functionings)으로 한 개인의 존재적 상태를 구현하는 요소이다. 개인의 실현능력은 그 개인이 선택하여 실현시킬 수 있는 기능들의 群을 반영한 것이다. 결국 이 접근법은 삶을 다양한 行爲(doings)와 存在(beings)의 결합으로 보아 삶의 질을 가치 있는 기능들을 실현할 수 있는 실현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삶의 질을 평가한다.

機能들은 매우 다양하며 또한 각 개인이 기능들에 부여하는 가중치는 다를 수 있으므로 사회나 개인을 평가함에 있어 이러한 偏差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Sen(1993)은 주장한다. 아울러 Sen은 이러한 기능의 구성과 관련하여 평가공간(evaluative space)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평가작업을 행할 때, 가치의 대상들(value objects)을 선정하고 그 각각이 지니는 가치의 정도 혹은 가중치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 선정된 가치대상들로 규정되는 공간이 평가공간이 된다. 功利主義的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평가공간은 개인효용들로 구성될 것이며, 이 접근법에서는 기능과 실현능력이 그 구성요소가 될 것이다.

실현능력은 기능들을 실현하여 享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접근법은 일종의 集合概念으로 실현능력을 규정하고 이를 기초적인 情報基盤으로 看做한다. 어떤 사회에서 n 개의 기능들이 평가공간을 구성하는 가치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한다면 기능공간의 한 점은 n 개의 기능들로 이루어진 機能群 혹은 한 개인의 행위(doings)와 존재(beings)를 나타내는 카르테시안 곱(Cartesian product)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생활가능성은 이러한 기능군으로 구성되는 集合으로 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행위와 존재의 다양한 組습을 나타낸다.

이를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능공간 X 의 임의의 元素(기능군)를 x_i 라 하면

$$x_i' = (x_{i1}, x_{i2}, x_{i3}, \dots, x_{ij}, \dots, x_{in}) \quad (1)$$

로 나타난다. 여기서 x_{ij} 는 i 기능군의 j 번째 기능을 나타낸다. 개인의 실현능력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기능군의 집합으로 나타나므로 개인 k 의 실현능력을 집합 C_k 라 하면

$$C_k = \{x_i \in X : i = 1, 2, \dots, k\} \quad (2)$$

가 된다. 여기서 k 의 값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실현능력이 높은 개인일수록 k 의 값이 크게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낮은 개인은 작은 k 값을 가질 것이다. 극단적으로 기초적인 욕구를 겨우 충족시킬 수 있는 기초적 실현능력(basic needs)을 지닌 개인의 k 값은 매우 작은 數值로 나타날 것이다.

한편 삶의 질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선정된 가치대상에 대한 價値尺度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기능공간 X 에 속하는 임의의 기능군 x_i 에 대해 함수값을 부여하는 일종의 價値尺度函數

$$y_i = f(x_i), \partial y_i / \partial x_{ij} > 0 \quad (j = 1, 2, \dots, n) \quad (3)$$

를 구성할 수 있으며,⁶⁾ 이 가치척도함수를 이용하여 임의의 개인 k 의 실현능력을 나타내는 指標를 유도할 수 있다.

$$C_k = C(y_1, y_2, \dots, y_k) \quad (4)$$

Sen은 이러한 평가문제와 관련하여 요소별 평가와 집합적인 평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앞의 식 (1)과 (2)는 가치대상의 선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기반에 불과하므로 실제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가치대상의 가중치 결정과 함께 구체적인 함수의 형태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⁷⁾

(8) 삶의 질 개념에 대한 평가

삶의 질에 대한 개념규정은 규범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논의는 현실성을 결여한 추상적인 논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삶의 질이 정부의 정책이나 개인 혹은 집단의 의사결정 행위에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개체적 主觀性과 문화적 相對性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操作的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970년대 이후 성장 지향적인 발전전략이 전세계적으로 추진되었으나 貧困層의 복지증진시키는데 한계가 露露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발전전략의 목표에 대한 회의가 개발도상국들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일어남으로써 기초적인 인간욕구(basic human needs)의 충족이 국가발전의 중요한 목표로 대두되었다. 기초욕구의 개념은 인간이 자신의 尊嚴性을 실현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필수적인 요건의 충족과 관련된 衣食住, 건강, 교육, 사회보장, 근로조건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들은 Sen이 주장한 실현능력을 결정하는 수단 혹은 재화로 볼 수 있다.⁸⁾

인간 욕구의 範疇를 물질적 욕구, 사회문화적 욕구, 심리적·정신적 욕구로 구분하고 각 범주에 다양한 하위욕구를 포함시킬 경우, 이러한 욕구의 실현과 관련된 외부적 수단까지

6) 여기서 편도함수값이 양인 것은 기능군에 속한 개개의 기능들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반영한 것이다.
 7) 식 (3), (4)는 일반적인 함수형태를 묘사한 것으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함수의 형태를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
 8) 기존의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들이 기초적 욕구를 의식주 및 의료보호 등 재화에 대한 욕구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재화와 실현능력간의 관련성이 사회나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양자의 구별이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들로 인간의 필요욕구에 대응되는 다양한 물적 자원, 사회제도 및 체제, 교육체제, 사회문화 및 행태, 정책 및 정치체제, 관념체계와 종교, 지식산업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각각의 수단가치에 대해 여러 하위요소 및 측정변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⁹⁾

인간의 필요욕구와 이에 대응하는 외부적 수단가치의 결합을 통하여 삶의 질이 결정된다면 Sen의 실현능력 접근법은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포함하고 특히 삶의 질에 대한 主觀性을 고려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Sen의 이론은 그 이론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연구에의 응용을 위해서는 실현능력의 정의 및 가치척도함수의 설정이 필요하며, 이는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삶의 질 평가를 위한 차원은 客觀的인 次元(Objective Dimension)과 主觀的인 次元(Subjective Dimension)으로 구분하고, 객관적인 차원의 지표들을 적절히 선택할 경우 주관적인 삶의 滿足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지닐 수 있다고 보여진다. 아울러 객관적인 삶의 조건들은 주관적인 만족의 充分條件은 아니라 하더라도 必要條件으로서의 의미는 지닌다는 측면에서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 객관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나 가능한 한 주관적인 요인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된다.

3. 삶의 질의 構成要素

(1) 構成要素

다양한 삶의 질 概念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 측정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생활조건을 중시하는 접근과 구체적이고 주관적인 삶의 경험에서 출발하는 접근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¹⁰⁾ 연구의 초기에는 재화, 서비스, 화폐 등의 총량적 성장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主流를 이루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삶의 질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개별적 의미를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삶의 질의 경험적 측정기법과 고려해야 할 생활영역 등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삶의 질에 대한 논쟁은 삶의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滿足度 사이의 관계, 주관적인 滿足度 가운데서도 자기중심적인 滿足도와 대인관계가 미치는 중요성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그 核心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삶의 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개념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측정방법도 개념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경제성장 및 발전단계에 따라 다양한 삶의 질 측정기준이 개발·사용되고 있어, 발전단계가 相異한 선·후진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실용적인 통설이 합의되지 않은 채, 학술적으로 정립되는 과정에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을 표시하는 구체적인 代理物 내지 증거로 여겨지는 社會指標가 국제기구의 勸告案으로서 제시되고 있으며, 학계는 물론 국가별로 연구되어 활용되고 있다.

9) 이러한 외부적 조건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영역별로 범주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10) 주관적인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회학, 사회심리학, 인류학 등의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행정학이나 정책학 분야에서도 크게 증대되고 있다.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려는 연구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양자를 통합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Kuz, 1978, Parks, 1984).

개인 및 인구집단의 삶의 주요 측면에 대한 경제사회적 여건과 상태를 질적·양적으로 나타내는 사회지표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삶의 질을 나타내는 방편적인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으나, 사회지표는 부문별 내지 관심영역별로 수많은 指標系列로 이루어져 있어 삶의 질을 집약적으로 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1995년에 개편된 우리나라의 사회지표체계는 12개 부문에 55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지표가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나 삶의 질을 이처럼 수백 개의 지표에 의하여 나타낸다는 것은 무리이며 또한 이들 지표를 국제 비교하거나 지역간 비교를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질의 현황 및 변화과정을 탐색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건(요소)에 따라 관련지표를 체계적으로 選定할 필요가 있다.

센(Sen, A.)이 제안하고 있는 實現能力 接近方法(the capability approach)에 따라 삶의 질의 개념을 규정한다면, 삶의 질은 '인간존엄성의 전일적 발현정도를 나타내는 實存能力(existential capability)'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다 서술적으로는 '한 개인의 물질적, 사회문화적, 심리적·정신적 실존의 통일적 總合'이라고 할 수 있다(박성복 외, 1996).

한성덕(1996)은 삶의 질에 대한 이같은 서술적인 개념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삶의 질을 규정짓는 구성요건을 생활을 위한 기본적 요건, 물리(질)적 요건, 그리고 정신적 요건으로 단순화하고 삶의 질에 반영되는 속성적 내용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삶의 질의 개념을 통하여 한성덕(1996)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질의 구성요건과 평가차원은 <표 3-1>과 같다.

<표 3-1> 삶의 질의 구성요건과 평가차원

구성요건 및 관련구조변화		평가차원
구성요건	기본적 요건	건강, 생명과 재산의 안전
	물리적 요건	수준, 안정, 형평, 쾌적
	정신적 요건	수준, 안정·안심, 형평, 자유
「삶의 질」 관련 구조변화	경제사회 구조변화	노령화, 세계화, 정보화, 도시화, 산업화, 환경친화, 지방화, 핵가족화 등
	의식구조 변화	의식구조 변화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사회지표체계가 부문구성에 이어 관심영역→세부관심영역→개별지표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문에 따른 관심영역별 지표를 삶의 질의 구성요건과 평가차원에 따라 接木하여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선정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고려이다. 그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욕구위계가 기초적 욕구로부터 고차원적 욕구로 移行하는 방향성을 갖는다고 볼 때, 삶의 질을 구성하는 '기본적 요건'은 욕구위계상 가장 기초적인 사항인 건강과 생명·재산의 안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건강'하게 사는 것과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라는 것이 유한한 생명체인 사람이 삶(생활)을 영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개인 및 인구집단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관심은 국제기관과 각국에서 편제된 사회지표체계에 반드시 등장하는 부문 내지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건강과 안전'과 같은 사회적 관심사는 미국의 삶의 질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회적 영역을 대표하며, 우리나라의 사회지표체계에서도 '건강'과 '안전'은 각각 하나의 부문으로 설정되어 있다.

둘째, 삶의 질을 결정짓는 '물리적 요건'으로 각종 재화와 서비스와 같은 물리적인 것들은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원천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러한 물리적 요건은 그 절대적 및 상대적 수준뿐만 아니라 물리적·제도적인 각종 편리의 질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관심부문 또는 영역별로 삶의 질의 물리적 요건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평가하는 차원으로는 지표가 나타내는 수준, 안정, 형평, 쾌적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평가차원으로서 표시되는 관련지표의 예를 들면, '1인당 GNP', '장래 가구소득에 대한 기대', '소득 10분위별 분포', '가구당 주거공간', 등으로 이들은 각각 삶의 질의 물리적인 요건으로서의 수준, 안정성, 형평성, 그리고 쾌적성을 평균적인 수치로서 표시하는 지표가 된다.

셋째, 정신적 요건은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비물리적 요건으로서 정신적 풍요는 삶의 질을 규정짓는 고차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교육, 문화와 여가, 가족, 사회참여 등이 삶의 질을 이루는 정신적 요건과 관련된 관심부문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관심부문별로 삶의 질의 정신적 요건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평가하는 차원은, 부문별 지표에 의하여 나타나는 수준, 안정(안심), 형평, 자유 등이다. 관련지표의 예를 들면, '국민의 평균교육년수', '일터에 대한 안전의식', '所得分配의 형평에 대한 의식', '婚姻에 대한 태도'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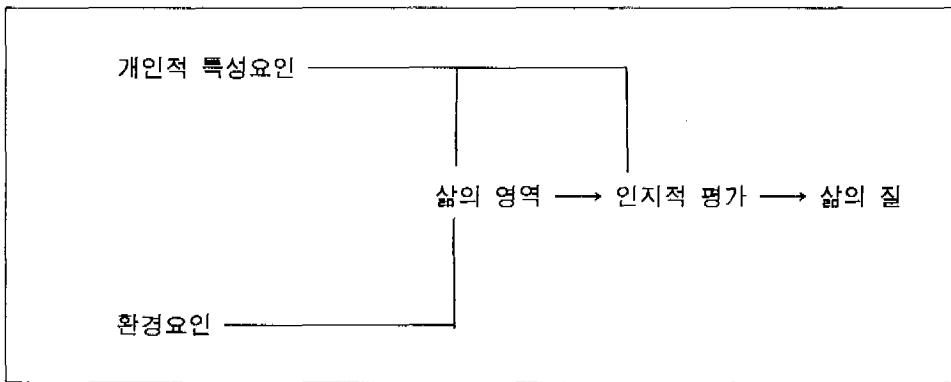
끝으로, 경제사회의 발전은 발전단계에 상응하는 경제사회 구조 및 의식 구조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구조변화'는 개개인이나 물론 인구집단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건들을 외생적으로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交互作用을 통하여 변화시키기 때문에, 삶의 질과 관련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구조변화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직접적인 요건이 되지 않으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면서 일정한 추이와 경향을 보이는 특징을 지닌다. 異時點間의 비교라는 비교정태적인 관점에서, 구조변화를 경제사회 구조와 의식 구조의 변화로 구분한다면, 전자의 경우에 속하는 것은 老齡化, 세계화, 정보화, 도시화, 산업화, 환경친화, 지방화, 핵가족화 등이며, 후자에 속하는 것은 정신적, 심리적 의식의 변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임희섭(1996)은 삶의 질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들을 몇 가지의 차원이나 변수들로 분류하고, 그와 같은 주요 차원들과 변수들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개념적인 틀(Conceptual Framework)을 구성해 보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삶의 질 차원을 客觀的인 次元(Objective Dimension)과 主觀的인 次元(Subjective Dimension)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지표를 적절히 선택할 경우 주관적인 삶의 滿足度와 높은 상관관계를 지닐 수 있으며, 아울러 객관적인 삶의 조건들은 주관적인 만족의 充分條件은 아니라 하더라도 必要條件으로서의 의미는 지닌다고 보고 있다.¹¹⁾

11) 삶의 질의 객관적인 차원은 경제적인 생활수준, 평균수명, 직업기회와 직업선택의 다양성, 교육기회 및 교육여건, 범죄율이나 교통사고율, 문화시설, 의료보장 등 특정사회의 객관적인 삶의 조건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주관적인 차원은 개인의 삶이 자신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내면적인 기준 혹은 기대수준을 충족시킨다고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일부 학자들은 동일한 객관적인 조건에 대해 개인이나 집단

물론 객관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지표와 주관적인 만족을 나타내는 지표 사이의 관계가 개인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상관관계의 방향이나 정도에 있어서 可變性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변성은 개인이나 집단이 지니고 있는 內在的 및 外在的 준거기준을 판별 하므로써 어느 정도 객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삶의 질의 認知的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내재적 기준과 외재적 기준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 사이에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삶의 질을 객관적인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認知的 評價라고 정의하고 있다(임희섭(1996), 9-11)

이상과 같은 삶의 질에 관한 정의를 바탕으로 임희섭(1996)은 삶의 질의 주요 영역을 (1)자아실현영역, (2)가계생활영역, (3)가족생활영역, (4)직업생활영역, (6)지역사회영역으로 나누고, 개인의 삶의 질은 이러한 주요 영역에서 개인들이 경험하는 주관적인 인지와 평가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삶의 주요영역들과 인지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인 특성요인(성별, 연령, 건강, 결혼지위 등의 인구학적 요인, 직업, 소득, 교육수준, 계층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요인, 개인의 퍼스널리티와 같은 심리적인 요인을 포함한다)과 환경요인(생태학적 환경뿐만 아니라 공공안전, 교통, 의료, 복지, 교육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 이데올로기, 가치관, 관습 등과 같은 문화적 요인을 포함한다)으로 대별할 경우, 그 측정문제와 관련한 삶의 질의 概念圖는 다음과 같다(임희섭(1996), 12-14).



<그림 3-1> 삶의 질의 概念圖

이상과 같은 한성덕(1996)과 임희섭(1996)의 논의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政策的 含意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중요한 삶의 영역들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으로 투자해 가는 전략을 취하되 국민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즉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여야 하며, 생활환경을 쾌적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경정책과 교통정책, 교육환경 및 문화적 환경의 개선을 위한 정책 등이 필요하다. 둘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은 총량 위주의 성장정책¹²⁾ 수행과정에서 심화된 지역적·계층적 不平等과 不公正을 시정하고 모든 계층과 지역,

에 따라 그 만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삶의 질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등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조화문제가 삶의 질 측정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2) 한국의 공업화를 상징하는 도시가 울산이고 울산의 상징탑인 '공업탑'에는 '공업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기 속으로 뿜어나가는 그날엔 국가의 희망과 발전이 도래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나아가 국가전체가 하나의 市民共同體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社會統合的인 정책이 추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인지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제발전, 지식의 증가, 정부의 정책 등 다양한 외생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도 이러한 변화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2) 國內外의 ‘삶의 질’ 調査 및 國際比較研究에서 나타난 삶의 질의 構成要素

삶의 질에 관한 조사는 조사대상, 조사목적 및 조사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재구(1986)의 연구, 김병국(1989)의 연구, 정규현·배규한·이달곤·최영병(1994)의 연구, 중앙일보사의 조사, 공보처 여론과가 민간조사기관에 위촉하여 행한 삶의 질에 관한 의식조사,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외(1995)의 한국 근로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등을 들 수 있고, 일본의 경우 총리부에서 실시하는 국민생활관련 여론조사를 대표적인 조사사례로 볼 수 있다.

하재구(1986)는 서울시민 1만 명을 무작위로 표본추출하여 12개의 주요 관심영역에 대해 주관적인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였다.¹³⁾ 김병국(1989)의 연구는 객관적인 삶의 질 지표를 이용하여 도시생활 수준을 비교하려는 시도로, 국내 55개 도시를 대상으로 都市生活環境分野에 국한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동원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고 있다. 그는 도시생활환경을 구성하는 영역을 자연·인구환경, 주거환경, 보건사회, 교육문화, 경제, 공공안전의 6개 분야로 대분류한 다음, 이를 17개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37개 지표로 세분류하고 있다. 이 37개 지표에 대해 안전성(safety), 건강성(health), 쾌적성(amenity), 편리성(convenience)이라는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측정된 도시간 생활환경의 질을 비교하고 있다. 정규현 외(1994)의 연구에서는 삶의 질이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는 종합적 개념이고 또 상당부분 개인의 주관적 판단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객관적 지표로 나타낼 성격의 것은 아니나 다른 나라와의 비교나 양적 분석을 위하여 가시화할 수 있는 ‘물리적 삶의 질’만을 다룰 수밖에 없음을 전제한다. 이에 따라 삶의 질 지표구성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삶의 질이 소득, 환경, 복지의 세 부문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고 <표 3-2>와 같은 12개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조사결과 나타난 소득, 환경, 복지의 3부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1992년도에는 각각 52.7%, 22.5%, 24.7%의 비율로 나타났으나 이 비율은 2010년에는 각각 34.6%, 34.6%, 30.5%가 될 것으로 나타나 각 부문의 중요도가 30-35% 내외로 收斂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3) 여기서 12개의 관심영역은 (1) 가정생활, (2) 주거장소, (3) 건강상태, (4) 교육기관, (5) 직장(사업)활동, (6) 저축 또는 자금상태, (7) 이웃 및 친족관계, (8) 여가시간 활용, (9) 서울시 인구증가, (10) 환경, 교통 및 생활편의시설, (11) 전쟁의 불안, (12) 정부와의 관계이다.

<표 3-2> '물리적 삶의 질'의 부문별 지표

부 문	지 표
소득 · 소득수준 · 소득의 안정 · 분배의 평등	· 1인당 GNP · 실업률 · 소득분배지수
환경의 질 · 수질 · 대기의 질 · 쓰레기 처리 · 자연휴식공간	· 광당량의 BOD 및 COD · 서울의 SO ₂ 농도 · 하수처리율 · 산업폐기물 발생량 · 주요도시 1인당 공원면적
복지 · 주택의 질 · 교통의 질 · 공안상태 · 의료수준 · 사회부조	· 주택보급율 · 1인당 주거면적 · 교통사고 사망자수 · 차량 1대당 도로 면적 · 강력범죄 발생률 · 평균수명 · 사회보장복지비 비율

자료: 정규현·배규한·이달근·최영명, 『21세기 한국의 사회발전전략: 성장·복지·환경의 조화』, 나남출판, 1994, p. 96.

중앙일보사가 전국 74개시의 삶의 질을 비교평가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보다는 '살맛' 나는 도시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할 목적으로 1995년 이래 실시하고 있는 삶의 질의 평가분야와 평가항목 指標系列은 <표 3-3>과 같다. 평가분야는 건강한 생활, 안전한 생활, 교육·복지, 경제생활, 편리한 생활, 문화생활의 6개이고 평가분야별 항목으로 제시한 지표는 36개이다. 이들 지표의 분포에 항목별 중요도와 滿足度를 감안하여 평가한 전체적인 생활여건으로서 삶의 질의 順位는 74개 市 가운데 경기도 과천과 제주도의 서귀포가 각각 1위와 2위로, 그리고 서울은 5위로 나타났다.

1997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1위는 과천이 연속하여 차지하였으며, 문경, 남원, 춘천, 정읍이 2-5위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서울은 5위에서 66위로 하락하는 등 순위의 변동이 크게 발생한 것은 건강한 생활의 가중치가 낮아진 반면에 안전한 생활의 가중치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순위를 매기는 방법론상의 타당성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언론매체가 실시한 이러한 조사가 지니는 의미는 삶의 질 문제가 大衆的인 관심사로 전환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표 3-3> 삶의 질의 평가분야와 평가항목

평가분야	평가항목(지표)
건강한 생활	인구밀도, 수질오염도, *의료인구수, 공원녹지비율, *약국수, 대기오염도
안전한 생활	*화재발생수, *유·홍업소수, *범죄발생건수, *강력범죄발생건수, *교통사고발생건수, *경찰관수, *소방장비수
교육·복지	*사설학원수, *4년제 대학정원수, 학급당 학생수, *복지시설수용인원, 사회복지비, 대학진학률
경제생활	재정자립도, 1인당 예산규모, 시·군 통합여부, 25평아파트전세 가격, 장바구니 물가, 취업률
편리한 생활	주택보급률, 상수도보급률, 도시가스보급률, 자동차주행속도, *시장·백화점수, 행정서비스 수준
문화생활	*음악·연극무대객석수, *영화관좌석수, *전시공간면적, *공공도서관장서수, *서점수

주: *표는 인구 1만 명을 기준한 것임.

자료: 중앙일보사, 『전국 74개시 비교평가 자료집: 「삶의 질」 입체분석』, 1995, p.5.

공보처가 민간조사기관인 (주)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조사는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의식과 욕구, 기대수준을 알아봄으로써 세계화시대에 요구되는 국민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국가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비례할당표본 1,000명을 대상으로 1995년 10월에 실시한 조사의 주요 내용은, 국민이 생각하는 삶의 질의 개념, 현재의 생활에 대한 満足度 및 미래에 대한 期待值, 민생·생활·복지 개혁과제의 우선 순위, 개혁·세계화·삶의 질간의 相關關係 등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 조사에서는 ‘삶의 질이 높은 것’에 대한 개념을 모든 일상생활이 풍요롭고 편안한 것,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것,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사는 것,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 종교생활, 자아실현, 풍부한 문화생활, 남을 위해 奉仕하는 것 등으로 보고 삶의 질의 구성부분으로서 <표 3-4>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23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구성부분에 대한 満足度 순위는 가정의 화목, 주위 사람과의 인간관계, 그리고 현재의 직업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하고, 최하위는 현재의 물가, 교통문제 해소, 청소년 문제 등으로 조사되었다.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은 삶의 질의 분야’는 <표 3-4>에서 보듯이, 본인과 가족의 건강, 자녀문제, 안락한 주거생활, 수입증대, 직장에서의 성공, 본인의 노후대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의 특징은 삶의 질에 대한 이론적인 정의나 규정이 없이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개인 및 사회적 여건에 대한 主觀的인 견해를 조사하였다는 점이다.

<표 3-4> 삶의 질의 구성부분과 관심순위

구 성 부 문		가장 관심이 많은 '삶의 질' 순위
1. 현재의 소득수준	13. 사회복지 향상	1) 본인과 가족의 건강
2. 현재의 직업	14. 교육의 질 향상	2) 자녀문제
3. 현재의 물가	15. 안전관리 시설	3) 안락한 주거생활
4. 깨끗한 수돗물	16. 인권보호	4) 수입증대
5. 깨끗한 자연환경	17. 법질서 및 사회질서 확립	5) 직장에서의 성공
6. 자연휴식공간확보	18. 청소년 문제	6) 본인의 노후대책
7. 쓰레기 처리문제	19. 현재의 건강상태	
8. 건강하고 위생적인 식품	20. 문화/예술생활	
9. 주택난 해소	21. 레저/여가생활	
10. 교통문제 해소	22. 주위사람과의 인간관계	
11. 민생치안 확립	23. 가정의 화목	
12. 의료서비스 제공		

자료 : (주)미디어 리서치,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식관련 여론조사보고서』, 1995.

연세대학교 부설 사회발전연구소 외(1995)의 '한국 근로자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사회문화, 사회제도 및 계층의식, 직무, 일상생활, 그리고 전반적 満足度 등에 의하여 파악하고 있다. '사회문화'를 보는 내용은 유교윤리의식, 가족과 가족의식, 교육과 학벌의식, 종교와 종교의식 등이다. '사회제도 및 계층귀속의식'과 관련된 것으로는 정부와 정부활동, 진보와 보수의식,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대한 태도, 비공식적 인간관계,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근로자 및 재벌의 사회공헌도에 대한 認知, 근로자들의 階層 歸屬意識, 근로자의 사회집단에 대한 信賴度 등이다. '직무'에 관한 내용은 직무자율성과 경영합리성, 직무만족과 헌신, 관계적 특성 등을, 그리고 '일상생활'과 관련해서는 환경주거, 여가생활, 생활만족의 기대요인 등이다. 마지막으로 '전반적 삶의 満足度'는 전반적인 생활満足도와 삶의 하위영역별 満足度, 그리고 양자간 상관성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국민생활관련 여론조사'는 현재 생활 및 향후의 생활에 대한 국민의식, 생활의 질, 풍요한 정도, 국민생활과 관계된 의식과 요망사항에 대한 광범한 조사에 의하여 행정일반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1958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왔다. 전국의 20세 이상 인구 10,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조사의 조사항목은 <표 3-5>와 같이 크게 4가지로 나타난다. 현재의 생활에 대한 의식,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의식, 생활의 질과 풍요, 정부에 대한 요망의 4개항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항목에 대하여 主觀的인 견해를 묻는 것이 특징이다.

<표 3-5> 일본의 국민생활관련 여론조사

구 분	조사평가항목
현재의 생활에 대한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년과 비교한 생활의 향상감 - 생활에 대한 만족도 - 생활의 충실감 - 일상생활에 걱정 및 불안 - 생활정도
향후의 생활에 대한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견해 - 앞으로의 생활에 중요한 것 - 마음의 풍요, 물질적 풍요 - 장래준비, 매일의 생활을 충실히 하면 기쁨이 온다 - 생애주기(life-style)
생활의 질, 풍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정도 - 저축의 목적 - 풍요함의 여부 - 풍요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 - 자유시간 및 수입에 대한 생각 - 자유시간을 보내는 방법 - 생활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 불만스러운 것-
정부에 대한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에 대한 요망 사항

한편, 최근 國家競爭力이 강조되면서 국가경쟁력을 측정하여 국가별로 비교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연구사례들에서 나타나는 삶의 질 구성요소 및 연구결과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Slottije 외(1991)는 삶의 질에 대한 종합지표(aggregate indexes)를 수립하고, 복지에 관한 상대적인 국가간 순위가, 복지에 관한 상대적인 정보가 개별적인 삶의 질 지표로부터 어떻게 종합화되고 가중치가 부여되는가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lottije 외는 획득 가능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20개의 지표를 선정하여 126개국의 삶의 질에 대한 국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선정된 지표 및 지표가 나타내는 삶의 질의 높낮이의 기준을 정리하면 <표 3-6>과 같다. 이들 지표에 의하여 통계적으로 측정된 전반적인 삶의 질의 순위를 살펴보면 스위스, 영국, 미국, 그리고 일본이 각각 1위, 2위, 13위, 15위로 나타나고 있고, 한국이 70위인데 비하여 필리핀과 인도는 각각 47위와 48위로서 한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로 본 우리나라의 순위가 1992년을 기준으로 할 때 174개국 중 31위인 점에 비추어 이러한 결과를 수용하기는 상식적으로 어렵다.¹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는 指標選定의 문제, 통계자료의 문제, 그리고 屬性이 다른 지표의 綜合指數化 과정상의 문제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¹⁵⁾

14) UNDP, *Human Relations Report: 1995*,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표 3-6> Slottije 외의 삶의 질 국제비교 지표 및 평가기준

지 표	삶의 질의 평가기준
1) 정치적 권리	1) 최고부터 최저까지(1~7위)
2) 시민자유	2) 상동
3) 평균 가구규모	3) 작을수록 좋음
4) 시민에 대한 군인 비율	4) 상동
5) 1인당 에너지 소비율	5) 상동
6) 여성노동력 비율	6) 상동
7) 미성년노동력 비율	7) 상동
8) 국토면적에 대한 도로면적 비율	8) 상동
9) 1인당 전화대수	9) 높을수록 좋음
10) 남성기대여명	10) 상동
11) 여성기대여명	11) 상동
12) 신생아 1천명당 유아사망률	12) 낮을수록 좋음
13) 병상당 인구수	13) 상동
14) 의사당 인구수	14) 상동
15) 1일 1인당 열량소비	15) 높을수록 좋음
16) 남성문자해독률	16) 상동
17) 여성문자해독률	17) 상동
18) 1,000명당 라디오 수신기 대수	18) 상동
19) 일간지의 수	19) 상동
20) 1인당 실질국내총생산	20) 상동

자료 : Slottije, D. J., Scully, G. W., Hirshberg, J. G. and K. J. Hayes, *Measuring the Quality of Life Across Countries*, Westview Press, 1991, pp. 24-30.

우선 지표선정과 관련하여 Slottije 외(1991)에서는 삶의 질을 반영하는 지표가 상당수 누락되어 있다. 즉 여가시간, 환경관련 투입, 교역량 등 삶의 질을 물리적으로 규정하는 생산관련 지표가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표를 평가하는 기준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시민에 대한 군인비율, 여성노동력 비율, 1인당 에너지소비율 등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평가기준은 개별국가의 특수성이나 선·후진국 및 개발도상국 등 개별국가의 발전단계를 고려하지 않는 恣意的인 평가기준이라 보여진다. 특히 '시민자유'의 순위는 OECD회원국인 경우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41위이고 핀란드는 22위로 나타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통계자료상의 문제이다. 이들의 연구는 그 결과만이 제시되어 있고 지표의 계량화에 사용된 原資料(raw data)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사용된 통계자료는 1980년대를 전후한 것이며 자료자체도 타인이 수집한 자료를 그 타당성과 신빙성을 재검토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끝으로 아무리 정교한 통계적 기법을 동원한다 하여도 직면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屬性이 다른 지표를 合成하는 데에 따르는 문제이다. 이들의 연구에 대한 Mihalyi(1993)의 다

15) Slottije et al(1991)의 연구에 대한 이하의 비판은 한성덕(1996)을 참고하였다.

음과 같은 批判은 이러한 지표의 합성에 따른 문제점을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일년 전에 비하여 자유는 많으나 고기는 적은 구소련인에게 물어보라.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정치적 권리는 좋다. 그러나 음식이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두 가지를 합성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삶의 질을 국제 비교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示唆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은 국가의 富에 대한 재조명과 전통적인 경제발전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각국의 壽命, 교육수준, 국민소득 등 주요통계를 이용하여 인간개발에 대한 성취도를 평가하는 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인간개발의 範疇를 구성하는 4가지 원칙으로는 (1) 노동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생산성, (2) 경제적·정치적 참여기회에 대한 형평성, (3) 물적·인적·환경적 자원의 世代間 지속가능성, (4)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리의 획득을 들고 있다.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는 인간개발의 패러다임이 함축하고 있는 중요한 구성요소들에 대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일종의 합성지수이다. 개발도상국과 산업화된 선진국으로 구분하여 인간개발지수의 도출을 위해 사용되는 구성요소와 지표수는 <표 3-7>과 같다. 우리나라의 인간개발지수는 1992년 현재 세계 174개국 중 31위로 나타나고 있다.¹⁶⁾

16) 인간개발지수의 산출방법 및 주요국가별 순위는 제3장 제3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표 3-7> 인간개발지표체계의 분야 및 지표수

개발도상국 (지표수)	산업화된 국가 (지표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개발의 모습 (11) · 인간박탈의 모습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개발의 모습 (10) · 인간걱정의 모습 (7) · 폭력과 범죄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개발의 추이 (7) · 남북간 격차 (5) · 도농간 격차 (7) · 아동의 생존과 개발 (9) · 건강 (7) · 식량안전 (7) · 교육불균형 (6) · 고용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10) · 교육 (9) · 고용 (8) · 실업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빈곤, 사회적 투자 (9) · 자원흐름의 불균형 (9) · 군사비 및 자원사용의 불균형 (6) · 도시화 (7) · 인구통계 (7) · 자연자원에 대한 대차대조표 (10) · 에너지 소비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빈곤, 사회적 투자 (8) · 자원흐름의 불균형 (8) · 군사비 및 자원사용의 불균형 (8) · 도시화 (7) · 인구통계 (6) · 자연자원에 대한 대차대조표 (7) · 에너지 소비 (8) · 환경과 공해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소득계정 (12) · 경제적 성과의 추이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소득계정 (12) · 경제적 성과의 추이 (7)
총지표수: 149	총지표수: 140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5,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p.150-154.

4. 삶의 질의 測定方法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삶의 질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삶의 질의 측정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 없이 다양한 測定方法들이 사용되었다. Myers(1987)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다양한 삶의 질의 測定方法들을 4가지 接近方法으로 분류하고 있다. Mayers(1987)의 분류에 의하면 삶의 질 측정의 接近方法은 개인의 主觀的 生活滿足度를 측정하는 個人福祉接近法(personal well-being approach), 지역사회의 삶의 질 구성요소와 추세에 초점을 두는 地域趨勢接近法(community trend approach),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의 지역간 비교에 중점을 두는 生活可能性接近法(livability comparison approach), 그리고 임금과 주거비용에 내재된 지역간 삶의 질의 차이의 보상정도를 추정하

는 市場·住居接近法(market/ residence approach)의 4가지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각 接近法의 중심내용과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기존의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이와 더불어 1980년대 이후 삶의 질 측정방법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生活可能性接近法과 市場·住居接近法의 경우에는 각 접근법의 주요 測定方法을 제시한다.

(1) 個人福祉接近法

個人福祉接近法은 삶의 질이 다분히 개인의 경험에 의한 주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적으로 관찰되는 客觀的 指標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主觀的 指標의 開發可能性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또한 社會開發政策은 외부적으로 관찰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政策結果의 分析과 評價를 어느 계층 혹은 집단의 주관적 인식에 맞추어야 하는가의 문제점이 있다.

(2) 地域趨勢接近法

地域趨勢接近法은 삶의 질의 총체적 지표로서보다는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삶의 질의 構成要素들의 변화를 예측하여 部門別 社會政策의 方向을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그러나 地域趨勢接近法에 의한 삶의 질 構成要素의 指標는 生活可能性接近法과 市場·住居接近法에서처럼 지역의 총체적 삶의 질을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3) 生活可能性接近法

生活可能性接近法에서는 주로 客觀的 生活與件 指標들을 이용하여 총체적 삶의 질을 도출한다. 이 접근법에서는 다양한 測定方法이 사용되고 있지만 대표적인 測定方法으로는 Nissan(1989)이 개발한 삶의 질 구성요소의 距離指標(distance index) 方法(Nissan, 1989)과 중앙일보사(1995)에서 사용한 測定方法을 들 수 있다.

Nissan(1989)의 距離指標 方法에서는 유클리드 距離 概念을 활용하여 가장 이상적인 도시와 개별 도시간의 총체적 삶의 질의 차이를 이상적인 도시와 개별 도시의 삶의 질 構成要素들간의 多次元 距離로서 개별 도시의 삶의 질을 산정한다. 距離指標에 의한 삶의 질 測定方法은 다음과 같다.

- ① n개의 研究對象地域들의 삶의 질의 구성하는 k개의 요인들을 선정한다(i지역의 j요인을 X_{ij} 라고 가정함).
- ② 각 構成要素들의 標準化指數(Z_{ij})를 계산한다.

$$Z_{ij} = (X_{ij} - X_j)/S_j$$

$$X_j : j\text{要因의 平均}$$

$$S_j : j\text{要因의 標準偏差}$$
- ③ 모델地域으로부터 n차원의 거리 d_0 을 측정한다.

$$d_0 = \sqrt{\sum (Z_{ij} - Z_{0j})^2}$$

- ④ 측정된 d_{10} 이 작은 값을 가지는 지역이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중앙일보사(1995)의 삶의 질 測定方法은 客觀的 삶의 질 指數와 主觀的 滿足度를 혼합하는 방법이며, 개별 도시의 삶의 질 측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산출된다.

- ① 객관적 삶의 질 構成要素들의 標準化指數를 구한다.
- ② 輿論調査를 통하여 구성요소별 加重値와 도시별 滿足度를 산출한다.
- ③ 標準化指數에 加重値를 곱하여 加重標準化指數를 산정한다(1차 점수).
- ④ 輿論調査에서 얻은 滿足度를 從屬變數로 하고 삶의 질 構成要素를 獨立變數로 한 多衆回歸分析에서 구한 回歸係數를 사용해 또다른 加重標準化指數를 산정한다(2차 점수).
- ⑤ 輿論調査에 얻은 滿足度를 도시별 평균값을 산출한다(3차 점수).
- ⑥ 1차, 2차, 3차 점수 각각의 標準化指數를 구한 다음 3가지 標準化指數의 평균값을 구하여 이 數値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74개 都市의 삶의 질 順位를 매긴다.

(4) 市場·住居接近法

市場·住居接近法에서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을 설정하여 計量化한 다음 賃金과 住居費用에 資本化되어 나타나는 삶의 질 構成要素들의 潛在價格을 구하여 각 지역의 構成要素들의 數量과 潛在價格을 곱한 값의 합을 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각 지역의 삶의 질이 된다. 각 構成要素의 潛在價格은 Blomquist 외(1988) 등이 사용한 것처럼 賃金函數와 住居費用函數를 헤도닉(hedonic)기법으로 추정하여 구한다. 市場·住居接近法에 의한 삶의 질 측정의 理論的 틀과 經驗的 推定方法은 다음과 같다.

도시의 삶의 질은 각 도시에 고유한 어메니티(amenity)의 總和로서 측정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각각의 어메니티가 복합적인 개념으로서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어메니티의 종류에 따라 다를 것이다. 도시간 삶의 질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의 構成要素인 다양한 어메니티에 加重値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Roback(1982)의 地域公共財 模型에 의하면 지역간 어메니티의 차이는 그 外部性 때문에 賃金과 地代(rent)의 지역간 차이를 유발한다. 이러한 임금과 지대의 지역간 차이는 삶의 질 지표의 측정에 적절한 개별 어메니티의 潛在的 價格을 산출한다. 그러므로 市場·住居接近法에 의한 삶의 질 測定方法은 기본적으로 각 지역의 賃金水準과 地代水準에 영향을 주는 지역의 개별 어메니티의 潛在價格을 추정하여 개별 어메니티 외부성의 총화를 그 지역의 삶의 질 지표로 설정한다.

市場·住居接近法の 理論的 模型은 Roback(1982), Blomquist 외(1988), Beeson & Eberts(1989), Rauch(1993)에서 원용한 가계와 기업 立地의 一般均衡模型에 근거하고 있다. 이 이론은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다.

- ① 각 지역은 地域固有의 삶의 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地域固有의 삶의 질은 가계의 效用과 企業의 生産性에 영향을 준다.
- ② 노동자들의 選好度는 동일하며 地域間 移動은 자유롭다.
- ③ 개별 노동자는 賃金率과 獨立的으로 한 單位의 노동을 공급한다.

- ④ 노동자들은 複合財(composite good: X)를 생산하고 소비하며 X의 가격은 1로 설정한다.
- ⑤ 地域間的 資本移動은 자유로우며 生産技術은 기업간에 동일하다.
- ⑥ 노동자들간에 效用이 동일하고 기업간에 單位費用이 동일할 때 均衡이 이루어지지만 均衡狀態에서도 임금과 임대료는 지역고유의 삶의 질 차이 때문에 지역간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전술한 가정 하에서 노동자들의 복지수준의 地域的 均衡(spatial equilibrium)은 모든 지역에서의 노동자들의 效用이 동일할 때 달성되며 이것은 식(1)로 표현된다.

$$V(w, r; a) = V_0 \quad (1)$$

V: 노동자들의 간접효용함수
 w: 임금함수
 r: 임대료함수
 a: 지역고유의 특성벡터

企業은 地域住民과 土地를 이용하여 規模에 대한 收益不變의 生産技術(CRS technology)로서 複合財(X)를 생산하며 기업의 立地均衡은 모든 지역에서 單位生産費用이 일치할 때 달성된다. X의 가격을 1 이라고 가정하면, 기업의 立地均衡은 식(2)로 표시된다.

$$C(w, r; a) = 1 \quad (2)$$

C: 단위비용함수

지역 고유의 어메니티는 개별 노동자의 人的資本과는 독립적이라고 가정할 때 특정 지역의 a가 다른 지역보다 지역기업에 더 많은 생산성 便益을 제공한다면(즉, $C_a < 0$), 식

(2)의 企業立地均衡條件上 그 지역의 임금과 임대료는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을 것이며 $C_a > 0$ 이라면 그 반대가 될 것이다. 지역간에 상이한 a에 의해서 발생하는 임금과 임대료의 지역간 차이는 식(1)과 식(2)의 전미분과 dw/da 와 dr/da 에 의해서 결정된다.

$$dw/da = \{1/(V_w C_r - V_r C_w)\}(-V_a C_r + V_r C_a) \quad (3)$$

$$dr/da = \{1/(V_w C_r - V_r C_w)\}(-V_w C_a + V_a C_w) \quad (4)$$

식(3)과 식(4)로부터 지역간 임금과 임대료의 차이는 지역 고유의 어메니티 a의 노동자 限界效用(V_a)과 기업의 限界費用(C_a)의 크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식(1)을 自然代數 微分(logarithmical differentiation)을 한 다음 Roy의 항등식(Roy's

identity)을 적용하면 식(5)와 같이 a 한 단위의 潛在價格(f)을 산출할 수 있다.

$$f_i = q(dr/da_i) - dw/da_i \tag{5}$$

f_i : 개별 어메니티 a_i 의 잠재가격

q : 주택소비량

식(5)에서 dr/da_i 와 dw/da_i 는 주택소비함수와 임금함수의 推定에 의하여 구할 수 있으며 개별지역 k의 삶의 질 지수 $QOLI_k$ 는 식(6)과 같이 추정될 수 있다.

$$QOLI_k = \sum_{i=1}^n f_i \cdot a_{ki} \tag{6}$$

a_{ki} : 지역 k의 어메니티 i의 양

(5) 측정방법의 평가 및 개선방향

다차원 距離指標 模型은 각 도시의 객관적 생활여건의 구성요소들의 벡터합성에 의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는 생활가능성 접근법 중의 일종이다. 생활가능성 접근법에 의한 삶의 질 측정 방법은 Boyer와 Savageau(1985)와 중앙일보(1995)의 방법이 일반적이다. Boyer & Savageau(1985)는 도시별로 개별 삶의 질 구성요소들의 순위를 합산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Pierce(1985)와 Norris & Norris(1986)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방법들로 측정된 삶의 질 지수는 도시별 삶의 질의 순위는 결정할 수는 있지만 측정된 삶의 질 지수가 도시간 삶의 질의 차이를 비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 경우 삶의 질 지수값 그 자체는 도시간 비교를 위한 통계적인 의미는 상실하게 된다.

중앙일보(1995)에서는 기본적으로 개별 삶의 질 구성요소들의 표준화지수(Z값)들을 합산하여 도시별 삶의 질 지수를 구한 다음 이 지수값을 표준화하여 도시별 삶의 질 순위를 결정하였다. 중앙일보(1995)의 방법으로 측정된 도시별 삶의 질 지수는 개별 도시의 총체적 삶의 질이 전국의 도시 가운데 상위 몇% 혹은 하위 몇%에 속하는가만을 설명하며, Boyer와 Savageau(1985)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시간 삶의 질 비교를 위한 측정수단은 되지 못한다.

이러한 기존의 측정방법과는 달리 Nissan(1989)의 距離指標 模型은 유클리드 거리 개념을 활용하여 가장 이상적인 도시와 개별도시간의 총체적 삶의 질의 차이를 다차원 거리로서 산정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측정된 개별 도시의 삶의 질 지수는 도시간 삶의 질의 차이를 비교하는 적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차원 距離指標 模型에 의한 삶의 질 지수의 이러한 속성은 개별 도시간의 비교뿐만 아니라 속성별 도시집단간의 삶의 질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Nissan(1989)의 방법으로도 개별 도시의 다년간에 걸친 삶의 질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각 연도마다 이상적인 도시의 삶의 질 구성요소가 다르고 각 연도의 개별 삶의 질 구성요소의 표준편차값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도시의 연도별 거리지표는 연도간 차이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 즉 각 연도별 개별 도시의 삶의 질 지수는 당해 연도에는 도시간 비교의 척도로

사용될 수 있지만 t년도와 t+1년도간의 비교척도로서는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연도간의 도시간 삶의 질에 대한 비교뿐만 아니라 개별 도시의 연도별 삶의 질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는 Nissan(1989)의 다차원 距離指標 模型을 다년도 다차원 距離指標 模型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多年度·多次元 距離指標 模型에 의한 도시별 삶의 질 지수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측정된다.

- ① n개의 연구대상지역들의 삶의 질의 구성하는 k개의 構成要素들을 설정한다(j도시의 j 構成要素를 X_{jt} 라고 가정한다).
- ② y개 연도간의 비교를 위하여 t년도, i도시의 j요인을 X_{ijt} 로 설정한다. X_{ijt} 는 i도시의 t년도의 j삶의 질 構成要素의 수치를 의미한다.
- ③ 개별 構成要素(X_{jt})들의 수치는 構成要素들간의 측정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측정단위의 標準化가 필요하다. 개별 構成要素(X_{jt})들의 標準化指數(Z_{ijt})는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다.

$$Z_{ijt} = (X_{ijt} - \bar{X}_j) / \sigma_j \quad (5-1)$$

$$\bar{X}_j = \left(\sum_{i=1}^n \sum_{t=1}^y X_{ijt} \right) / (n \cdot y) \quad (5-2)$$

$$\sigma_j = \sqrt{\sum_{i=1}^n \sum_{t=1}^y (X_{ijt} - \bar{X}_j)^2 / n \cdot y} \quad (5-3)$$

- ④ 도시간 삶의 질 비교의 기준이 되는 이상적인 도시의 삶의 질 構成要素를 설정한다. 이상적인 도시는 비교되는 모든 도시, 모든 연도의 개별 삶의 질 構成要素 중 가장 우월한 삶의 질 構成要素들로 구성된 가상적인 도시이다.
- ⑤ 이상적인 도시와 각 연도별 비교도시간의 n차원의 거리지표 D_{oit} 를 다음의 식으로 측정한다.

$$D_{oit} = \sqrt{\sum_{j=1}^k (Z_{ijt} - Z_{oj})^2} \quad (5-4)$$

D_{oit} 는 이상적인 도시와 개별 연도의 개별 도시간의 총체적인 삶의 질의 차이를 나타내는 指數이고 이상적인 도시의 D_{oit} 는 0이기 때문에 개별도시의 D_{oit} 가 작을수록 그 도시가 이상적인 도시에 보다 근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별 삶의 질 構成要素들이 개별 도시의 총체적인 삶의 질에 주는 영향력의 정도가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총체적 삶의 질에 대한 개별 構成要素들의 加重值(w_j)를 구하여 加重 n次元 距離指標(WD_{oit})를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WD_{oit} = \sqrt{\sum_{j=1}^k w_j (Z_{ijt} - Z_{oj})^2} \quad (5-5)$$

5. 결 어

다양한 삶의 질 概念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 측정과 관련된 既存의 연구는 客觀的인 생활조건을 중시하는 접근과 主觀的인 삶의 경험에서 출발하는 접근으로 크게 구분된다. 오늘날까지 삶의 질의 경험적 측정기법과 고려해야 할 생활영역 등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삶의 질에 대한 논의는 삶의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滿足度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그 核心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必要欲求와 이에 대응하는 外部的 수단가치의 결합을 통하여 삶의 질이 결정된다면 Sen의 실현능력 접근법은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포괄하고 특히 삶의 질에 대한 主觀性을 고려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증적인 분석을 위한 변수 및 지표의 선정이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삶의 질의 평가를 위하여 그 차원을 客觀的인 次元(Objective Dimension)과 主觀的인 次元(Subjective Dimension)으로 구분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적절히 선택할 경우 주관적인 삶의 滿足度와 객관적인 지표는 높은 상관관계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객관적인 삶의 조건들은 주관적인 만족의 充分條件은 아니라 하더라도 必要條件으로서의 의미는 지닌다는 측면에서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 요인 중심의 분석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주관적 요인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측정방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적 모형이 개발되어 있으나 Nissan의 다차원 거리지표 모형이 가장 탁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삶의 질 개념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하여, 삶의 질 구성요소, 삶의 질 측정방법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삶의 질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Sen의 실현능력 접근법이 가장 탁월한 접근방법으로 평가되며, 삶의 질 평가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 타당성을 지닐 수 있음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Sen류의 가치척도함수인 Nissan의 다차원 거리지표모형을 발전시킨 다차원·다년도 거리지표모형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Becson, P. E. and R. W. Eberts (1989) "Identifying Productivity and Amenity Effects in Interurban Wage Differential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0, 443-452.
- Blumquist, G. C., Berger, M. C. and J. P. Hoehn (1988) "New Estimates of Quality of Life in Urban Area," *American Economic Review*, 78(1), 88-107.
- Boyer, R. and D. Savageau (1985) *Places Rated Almanac*, Chicago: Rand McNally & Co.
- Burnell, J. D. and G. Galster (1992) "Quality of Life Measurement and Urban Size: An Empirical Note," *Urban Studies*, 29(5), 727-735.
- Clark, D. E. and W. J. Hunter (1992) "The Impact of Economic Opportunity, Amenities and Fiscal Factors on Age-Specific Migration Rate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32, 349-365.

- Cebula, R. J. and R. K. Vedder (1973) "A Note on Migration, Economic Opportunity and the Quality of Life," *Journal of Regional Science*, 13, 205-211.
- Cohen, G. A. (1983) "Equality of What? On Welfare, Goods, and Capabilities," in Nussbaum, M. and A. Sen (ed.) *The Quality of Life*, Clarendon Press: Oxford.
- Gastil, R. A. (1970) "Social Indicators and Quality of Life," *Public Administrative Review*, 30(6), 596-601.
- Glatzer, G. and H. M. Mohr (1987) "Quality of Life: Concepts and Measurement," *Social Indicators Research*, 19.
- Graves, P. E. and D. M. Waldman (1991) "Multimarket Amenity Compensation and the Behavior of the Elderly," *American Economic Review*, 81, 1382-1390.
- Knapp, T. A. and P. E. Graves (1989) "On the Role of Amenities in Models of Migr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Journal of Regional Science*, 29(1), 71-87.
- Kwon, Soonwon, *A Survey of the quality of Life in the EXCAP Region(The Republic of Korea)*, Working Paper No. 9211,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Lee, M. L. and B.-C. Liu (1988) "Socioeconomic Effects When Using Income as Quality of Life Indicator,"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47(2).
- Liu, B. C. (1980) *Quality of Life Indicators in U. S. Metropolitan Areas*, Midwest Research Institute, Kansas City.
- Maslow, A. M. (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Y: Harper.
- Mayers, D. (1987) "Community-Relevant Measurement of Quality of Life," *Urban Affairs Quarterly*, 23(1), 108-125.
- Mihalyi, P. (1993) "Book Review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17, 197.
- Nissan, E. (1989) "An Alternative Index for Quality of Life in Urban Area," *Review of Regional Studies*, 19(1), 77-80.
- Norris, D. A. and J. M. Norris (1986) "Places Rated Berated," *American Demographics*, 8(3), 50.
- Nussbaum, M. and A. Sen (eds.) (1993) *The Quality of Life*, Clarendon Press: Oxford.
- Parks, R. B. (1984) "Linking Objective and Subjective Measure of Performan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44, No. 2.
- Rogerson, R. J. Findlay, A. M., Morris, A. S. and M. G. Coobes (1989) "Indicators of Quality of Life: Some Methodological Issu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21, 1655-1666.
- Scanlon, T. (1993) "Value, Desire, and Quality of Life," in *The Quality of Life*, Nussbaum, M. and A. Sen (ed.).
- Schneider, M. (1976)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Indicator Research," *Public Administrative Review*, 36(3), 297-305.
- Sen, A. (1993) "Capability and Well-Being," in *The Quality of Life*, Nussbaum, M. and A. Sen (ed.).
- Slottije, D. J., Scully, G. W., Hirshberg, J. G. and K. J. Hayes (1991) *Measuring the Quality of Life Across Countries*, Westview Press.
- UNDP (1995) *Human Development Report: 1995*, Oxford University Press

- 강동식 (1990) “삶의 질”과 지역개발정책에 관한 연구-제주도민의 QOL지표와 공공정책의 연계분석-,“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高景錫 (1996) “健康한 삶 : 醫療福祉 側面의 삶의 質,” 『韓國行政研究』, 第5卷 第1號, 韓國行政研究院.
- 김병국 (1989) “도시생활환경지표와 측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학박사 학위논문.
- 김상균 편 (1996),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잡이』,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연구총서 4, 나남출판.
- 김영섭 (1975) “사회개발의 정책수단으로서의 개발지표에 관한 연구,” 환경논총, 2(1), 120-146.
- 김재홍 (1996) “울산지역의 대기오염 사업입지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지역연구 12(1).
- 미디어 리서치 (1995)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식관련 여론조사 보고서』.
- 박성복 외 (1996) “삶의 질에 대한 규범적 접근,” 21C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망과 과제,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3-32.
- 신도철 (1981) “한국인의 삶의 질 대연구-주관적 지표에 의한 분석,” 정경문화(5월호).
- 연세대학교 부설 사회발전연구소 외 (1995) 『한국 근로자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 윤종주 (1982) “한국의 사회지표,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사회학, 16, 15-17.
- 이경대 편 (1996) 『한국의 신진화 지표』,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연구총서 7, 나남출판.
- 李相湖, (1996) “快適한 삶 : 環境 側面의 삶의 質” 韓國行政研究, 第5卷 第1號, 韓國行政研究院.
- 이재성 (1988) “지방정부의 성과수준지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학위 청구논문.
- 李廷雨 (1991) 『所得分配論』, 비봉출판사.
- 林燮燮 (1996) “삶의 質의 概念的 論議” 韓國行政研究, 第5卷 第1號, 韓國行政研究院, 1996.
- 정규현 · 배규한 · 이달곤 · 최영명 (1994) 『21세기 한국의 사회발전전략: 성장 · 복지 · 환경의 조화』, 나남출판, 1994.
- 정용환 (1995) “생활의 질과 도시성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0(1), 29-43.
- 鄭日煥 (1996) “豊饒로운 삶 : 敎育, 文化 側面의 삶의 質” 韓國行政研究, 第5卷 第1號, 韓國行政研究院.
- 趙成漢 (1996) “公平한 삶 : 經濟的 側面의 삶의 質” 韓國行政研究, 第5卷 第1號, 韓國行政研究院.
- 조세환 · 오휘영 (1993)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의 滿足度 분석-경주시 사례연구-,” 국토계획, 28(4), 161-182.
- 주학중 · 윤주현 (1984) “1982년 계층별 소득분배의 추계와 그 결정요인과,” 한국개발연구, 3월호.
- 중앙일보사 (1995) 『전국 74개시 비교평가 자료집』, 서울: 중앙일보사.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각년도
- 하재구 (1986) “서울시민의 삶의 질 실태와 시정부의 공공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 하혜수 (1996) “지방정부의 정책산출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 한성덕 (1996) “삶의 질 지표체계의 구상,” 21C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망과 과제,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5-73.
- 현오석 (1976) “생활의 질의 측정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14(2) 326-34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한국의 사회지표 체제개편 연구 (I) (II)』.